

7



현희안 선생

현희안 선생은 1914년 2월 27일에 원동반감현 해주, 와우동 갈리닌 구역에서 벨롱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925년, 8세 되는 해에 함흥 소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에 소학을 나오고, 1929년 부조니촌 초중에 입학하여 1932년에 초종을 마감한후 당시에 소왕영이라고 부르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 (현재에는 무북리시)에서 한인 사전에 입학하여 1935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 사전을 수료하였다. 그 당시에 한인 사전을 마감한 간부는 아주 잘 준비된 초중 교원으로 인정 받았으며 많은 소학교들의 교장, 교무주임 등 책임적 교육자로 인정되었었다.

현희안 선생은 사전을 마감한후 지리와 역사 과목을 전문 하는 교원으로 고향에서 열지아닌 갈리닌군 소재지 교당에서 1937년, 즉 원동으로 부터 한인들의 강제 이주 때 까지 교편을 잡고 일하시였다.

현희안 선생은 강제이주 당시에 우르벡 공화국 하슈켄트주 중부철칙 구역 기로브 명칭 국영농장에 도착하시였다.

강제이주 초기에 국영농장에 도착한 한인들은 예외적 사택이 없으므로 지방 인종이 살고있는 집들에 아주 빈칸것 없는 작은 살림방에서 우르베헌인들과 같이 살기도 하고, 또는 문기 없는 사랑방에 노절도 없이 벼짚을 깔고 살기도 하고 혹은 집근처에 호굴막을 파고 역시 벼짚을 깔고, 또 뭍에 예영도 간단으로 가리운 다음 비가 새지 않게 하며 벼짚으로 가리우고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 겨우 너댓달 동안 지내었으나 살림이 되자 날씨가 따뜻하게 되자, 질병도 다 없어져 살림이 시작하였다. 장길 씨프스가 대략 말하며 1938년 봄 여름 사이에 우대한 이주인들이 죽었으나 아무런 예외 대책도 취하지 아니한 국가 보건사업은 아주 미흡한 수준에서 치료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에 또 많은 여름이 돌아오자 말라리아병(항진)이 급속히 전파 되다가 하년 어린이들에게는 홍진이 돌아가는 바람에 매일 십여명 사람들이 죽곤 하였다. 이렇게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는 한인들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농사도 짓고 집도 건축하기 시작하여 2년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원룸에 있을 때 때는 전북의 한인 학교에서 고려말로 아이들은 공부하였으나 강제이주당한 한인들에게서도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즉 한국말로 교육은 폐지하라는 정식 국가의 명령으로 학교들에서는 전북의 코어로 공부하게 되었다.

현희안 선생은 피로보 국영농장 교육에서 1937년 12월 부터 그해 언드 할까지 지리, 역사 교원으로 일하신 다음 1938년 가을에 페르가나 시에 있는 사대 지리학부에 일할 학과실속 재정으로 종교생은 하시였으나 권취선이 있는 현 선생은 그 사대 지리 학부를 1942년에 수료하였다.

현희안 선생은 항상 애하계 꿈꾸고 염원하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던 바 선생이 부여받은 졸업공예는 : «상기 사대  
졸업생은 국가가 인정하는 고종학교 지리-역사 교원임을 확인함»  
라고 서술하였다. 1942년에 사대를 졸업하고 가족이 살고 있는  
끼로브 국영농장에 돌아오니, 현언로는 국영농장을 한인 협동조  
합으로 개편하고, 그전까지 초중으로 있던 학교를 학생수 증가  
않아 집에 따라 고중으로 승급시켰다. 현선생은 연모가  
달라진 자기촌에 돌아와서 인제 부처는 새 직품 지리-역사  
교원 겸 교무주임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현선생은 끼로브 농촌에서 도는 벌써 오래전부터 일하시었  
으며, 교직원 전체 일동의 따듯한 인정을 받는 위신있는 간  
부로서 항상 협동조합 총회나 당위원회에 초청을 받아 세바직



1942년에 현선생의 페르가나 사대를 졸업한 다음 다시  
끼로브 촌 고중에서 지리-역사 교원으로 일하실시에 황웨이타  
양하고 결혼하였을 때 찍은 사진이다.

어이 차가하게 되었다.

1942년 신항연도가 착 시작되자, 얼마 안지나고 소련의 최고 명절인 시울렉명기념에 의하여 형동조합 당위원회는 현희안 선생을 소련공산당에 입당시켰다. 당시에 이것은 소련 간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였다.

1942년 소련인민들이 가장 어렵게 지내던 조국전쟁시기였다. 전선에는 피가 흐르고, 소련의 많은 영토와 도시들은 파쇼침략자들의 발흥아태에서 신음하곤 시기였다. 그러나 이시기에 고려사람들은 정적 불신론자라고 전선에 초모하지 않고 후방건설에 동원하여 조동을 시기면서, 후방전선이라 칭하였다. 그 당시 키로브 형동 조합은 고등에는 아주 훌륭히 준비된 간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차츰 북한에 나가서 많은 어려운 직책들에서 모범적으로 일하신 이윤만, 리준백, 박태섭, 박훈, 강상호, 김일, 현희안, 박태준, 박일주 등 선생님들이다.



사진은 1954년에 현희안 선생이 <<소베트 신보사기 편집국장>>으로 제실시에 촬영한 것이다. 우로부터: 리준백, 현희안, 김용행, 경철봉, 박태섭, 김철우, 김영환, 장학봉 등 선생님들이 평양시에 당중앙위원회의 참가자로 왔던 기획였다.

현희안 1945년 9월에 현선생은 소련군에 초모되어 원동변강 위로실로브시 (현재 우수리시)에 도착하여 소련군 제 25군

5.  
 단에 군사총역원으로 배속되어 처음 동반곡 출동에 넘어갔다  
 그곳에서 방향을 돌려 후릉으로 넘어간 다음 북평성 남향 청진  
 을 지나서 시월봉봉에 평양시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25군단 전  
 전 사령부에 배속되어 계속 군사총역원으로 일하시게 되었다.



Курсы переводчиков  
 4-ой группы  
 11.7.46. г. Фрунзе-Дш.

사진은 1946년 3월에 평양시 옥란봉을 일대 앞에서  
 현 허안 선생이 자기제자들인 노어 강습소 제 4조 청강생  
 들과 같이 촬영한 것이다.

좌로 부터: 앞줄에-리수철, 하동호, 박재홍, 현선생, 허진우, 노재일;  
 뒤줄:- 리현, 리용균, 김인숙, 신재식, 김만영, 황우수, 박덕봉, 리용옥, 김남영,  
 권희진, 동명석.

민전사령부 계통은 과연 광범하면서 다대복잡하였다 이것은  
 소련 25군단 지도부가 북한 전체행정기관들을 지도하는 기관이었다  
 민전사령부는 1946년에 들어서면서 소련식으로 농민들이나 지주들이나  
 할것없이, 전체 인민들의 호지를 몰수하여 국유화 강령을 실행하는  
 한편 협동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5월  
 부서는 전체 생산수단들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동시에 전체 산  
 업, 상업을 함께 망타하여 지어는 사소한 개인봉사까지 국

유화하던가 협동조합화 할 계획이었다. 농민이 75%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토지몰레는 과연 존재했었다. 1945년도 추확고 처티 몰레는 민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삼천제로, 농민이 7할을 먹고 국가가 3할을 받는다고 하여 놓고, 국가 대신 소련군이 3할을 받아서 소련으로 쌀을 발송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하면, 국가 행정기관이 그 쌀을 받아서 국사처리에 쓰이 할 대신 소련으로 가나 보니 국가는 농민들에게서 또 다시 철북적으로 건어낼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90여군, 20여개 도시들에 역시 하북민전사령부 들로 조직하고 각군, 군면, 행정지도자들은 반듯이 하북민전사령부 지시대로 시엄하여야 하였기 때 문에 수십, 수백명의 홍역원 들이 필요했었다. 소련으로 부터 북한에 나가 일하는 한인들도 많 았으나, 많은 사람들은 직접 행정책임자 직무에서 일하다보니, 홍역원은 많이 부족되었었다.

그때 문에 민전사령부는 신속하게 단기 노어 강습소들을 열어놓고 로어 홍역원 양성에 큰힘을 돌리었다. 바론 어때에 즉 1945년 12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현선생로 단기로어 강 습소 제 4조 단남조장겸 교관으로 1946년 6월 말까지 일하시었다. 이 포어 강습소를 졸업한 현선생의 제 자들은 최후 후지 74명, 산업국유화 사업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 고 높은 국가적 직무에 응급되어 사업하면서 현선생의 여러 훌륭한 친구로어 되었으며 많은 사업에서 혁신적 방조를 받 게되었었다.



사진은 현선생이 1946년에 교관으로 제실시에 촬영한것이다. 6

당시 북한에서 인민사령부의 지도하에 호지개혁을 성과적으로 하여 협동화 정책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현재까지 북한은 입에 거품을 물고 보도하나, 이 호지개혁으로 인하여 활아러지 때로 북어 상속하여온 그 호지를 배척한 것 수많은 농민들은 남한으로 넘어가 어 산가족을 어득어언어 그들의 수효는 현재 천만에 달하고 있다 말로는 성과적이라 하지만 호지개혁은 무수한 비상사고들은 밟어 내었 으며 견고하고 부유하게 대대 농촌으로 내려오며 살고 있던 가족들도 파산되어 남한에서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 후 산업 국영화, 상업 국가 독점도 어러한 사실은 어 씩씩하여 주었다.

현선생은 1946년 말에 흥역원 단리강습소에 농화당원이며 내각고급지도간부 학교 상급교원으로 다음 교육주업 책안에서 1951년 5월말까지 일하시었다. 동 학교는 조직항시에 약 25군단 정치부의 직속으로, 학교의 사업계획과 각 과정의 강령은 반듯이 군단 정치부 부장이 비준하였으리, 그에게 집행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학교 학생수효는 3001명이었더라, 그들은 공화국 내각과 당중앙 추천하여 파견하였으리, 교육 기간은 3개월이 었다. 제 1기부터 학교 교장에는 김일성 어이 부교장에 박 영빈, 차후 당중앙 조직부장 겸 정치위원으로 있다가 역사 1958년에 추방되어 타류겐론에 귀환하여 현재까지 90교령에 비교적 정정하게 제신다.

동 내각 직속 고급지도 간부학교는 1948년 12월 까지, 즉 노현군이 북한으로 북어 철퇴하자 내각 직속으로 넘어가, 계층 조직 초시기 강령으로 교육사업은 계속하였으리 교육적 대상은 역사 북방 관리국장, 각 시도군 연변위원장 및 각급 당 간부들이었으, 동쪽 산잔어 시작리기전 일변전 북어는 늘벌반어라고 조직 하고 그에 연설군 고급정치 간부들을 파견하여 공부시켰다. 당시 이 내각 직속 고급간부학교는 동평양 사동에 주재하여 있었기 때후에 동종 사동간부학교라고도 칭하였다.



사진은 1957년 7월 현선생이 평양으로 출발하여 모소근과 유학도 떠날 당시에 찍은 가족사진이다. 사진에는, 앞줄에 현선생, 사모님 황씨와, 3녀 딸라, 2녀 딸라, 뒷줄에 아들 베두아르드, 넬리, 환달

사동간북학교 제 1기 졸업식은 1946년 10월 초순에 있었다. 제 1기 졸업생들은 참말 100% 고급간부들이었다. 김성복상도, 도원번외원회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도당위원장도 부위원장들이었다. 졸업식은 사동간북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동 졸업식에는 영예 교장 김일성이 직접 참가하여 졸업장을 수여 하여 주었으며, 김일성의 김주봉 상임위원장도 참가하시었으며, 소준총으로 소의집 대장, 쿠나넨끼 소장, 군단 정치부장 그로모브 대좌, 정치부 선전부장 예르빌로브 공좌, 인민로 극장 최용건, 위 김일성의 보좌관 겸 흥익관 문에릭, 김일성종대 부총장 백일우 등 고관들이 참가하여 졸업식을 성대히 진행 되었다. 현희안 선생은 동족상잔이 시작되어 사동학교를 언솔 하여가지고 동반 흥화에까지 후퇴하여 들어 갔다가 다시

북한에 귀국한후 1951년 6월부터 조선전선병 해위<sup>9</sup>  
문화고급 협회 (원수) 기관지인 <소베트신보사기 신문  
조선집국장으로 임명되어 1954년 까지 일하시게 되었  
으며, 1954년 8월부터 공화국 기관지인 <조선청년기  
신문 책임주필로 1957년 8월까지 일하시었다.

현희안 선생은 그 성미가 아주 온순한편이면서 모든 일을 경솔하  
게 단번에 판단하나 결심하는 성격이 없었다. 현 선생을 잘 아는  
친구들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현 선생은 참내보다도 더 영리한  
사람이라고 일렀다. 1954년 까지 <소베트신보사기>에서 일하실  
때에는 그 기관이 조선기관이었기 때문에, 벌써 북한에서는 당시상  
검토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각 기관들과 단체들에서 간부들이  
막 들끓고 있었지만 현 선생은 이유어 든든하여 뒤집을 잡고  
단기면서 거저 남의 일로 구경하듯이 하면서 살아나. 그 당시에  
<조선청년사> 넘어왔을 때부터는 주위 환경에 대한 고찰관  
점이 전혀 달라졌으며 금일에 물론 단기는 간부들의 열음의 태일  
자기가 겪은 열음과 같기도 하였다. 역시 조선 출신이며, 사동  
간부학교에서 4년간이나 같이 일하였던 김동철 선생은 아득히  
도없이 감옥에 들어가 목사하였다는 소식이라던가, 1957년 당시  
조선 출신 간부들은 90% 이상이 안산, 처단, 랍취, 추방등을 당  
하여 아이들과 부인들이 물론 단기는 것을 볼때에 자기 알길로  
멀리 남다는 것을 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 선생은 이때에 손을 쓰지 어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심하고 당중앙에 가서 조선서 같이 왔으며, 한기 관에  
서 같이 일하였으며 현직이 다양한 자리에 앉아가시는 당시  
당 책임적 부장계 형님들이 조선으로 유학 보내달라는 것을 청  
들게 되었다. 요청은 해결되어 모스크바 중앙당학교에 선물  
잡지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모스크바 당학교에서 2년간 공부  
한 다음 1959년 도에 평양에서 다시 나옴은 호출을 받게

되자 현 선생은 북한대사관으로 향하여 북한국적으로 거절한다는  
 청원을 제출하고 당중앙 위원회에 운동장에서 제1형 식량증급으로  
 요청하고, 소련 최고 소비에트에 소련국적 회복, 소련공산당에 소련공  
 산당 회복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결과 모든 불씨는 현 선생  
 의 계획대로 되고, 중앙당 학교에서의 공부 불씨는 소련공산당 중  
 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르익은 중앙당 학교에 전학되  
 었던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현 선생은 다유겐트에 식주하면서  
 또 생활에 사색도 불배 받고, 공부도 계속하게 되어 1963년  
 에 다유겐트 중앙당 학교 신문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여  
 졸업하였다. 현 선생은 이 당시에 개인적이나 가족의 혼돈 불씨  
 등이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속 내막적으로 많은 고민으로  
 하에서 살아왔고, 사회주의 도상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김일성  
 독재주의 체계로 넘어가며, 소련과도 중국과도 같은의 형태  
 에서 민족적 백색 체로에 리행되어 무한, 무반이영의 허  
 상자를 내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조국의 흥일의 연일애에  
 하여 속내에 때 일하였던이 나 날을 보내었다. 현 선생은  
 1963년에 중앙당 학교를 마감하고 다유겐트 칠란나르구  
 역 < 차이 가 > 영화관 지배인으로 일하시다가 고혈압병  
 으로 인하여 1970년 12월 6일에 별세하시었다. 선생의  
 별세하시후 황위라 사모님은 물리학 학자가 된 아들 에두아르드  
 와 또 기타 다른 딸들의 농군들로 많이 밭에 놓고 행  
 복하게 지내고 있다.

현 선생은 수대한 국가적 표창들을 받았다: 북한에서 국기훈장 2급  
 자위 독립훈장 2급, 조선 해방 메달을 받았으며 소련의 많은 메달들로  
 수여 받았다.